

칼럼

장기채 주필



한국은 과연 노인이 가난한 나라인가

영국에서 한 때 은퇴한 노인들이 인도의 낡은 호텔로 모여든다. 적은 비용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멋있게 보낼 수 있다는 과장 광고에 속은 사람들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저마다 다른 사연과 목적으로 인도행을 선택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기대와는 영 딴판이다. 하지만 그들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려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최근에 개봉했던 코미디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의 줄거리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지만 선진국에서도 노후 준비는 만만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죽했으면 은퇴자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먼 타국 땅까지 가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인구 중 25% 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

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과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부끄럽게도 OECD 65세 이상 가구 상대빈곤율 1위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지식사람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지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8000여만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지식 키우느라 등골이 빠진다는 말은 결코 헛말이 아닌듯 한데도 젊은 부모들 또한 대물림하듯 지식 교육을 골인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고교교육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하지 못할 1위인 것이 여럿 발표되었던 사실도 이미 오래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그리고 고령화속도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주목해 볼만한 1위 항목이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 대책 없이 영겁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33개국 회원국 가운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노인 빈곤율은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 속에 노인을 먼저 배려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복지 재정 지출은 주요국 중 가장 적은 편이다.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은 고달픈 수밖에 없다.

돌아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 사상과 경로사상을 '윤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고 말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으로서 견뎌야 할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시대다.

9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14 세계복지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50위, 소득보장 80위, 건강상태 42위, 역량 19위, 우호적 환경에서는 54위라고 한다. 전체 1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문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부끄럽다. 하지만 토인비가 부러워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리자면 정부역할도 중요하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만 받던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노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할 것이다.

그동안 부양만 받아온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노인상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社說

농어민 미세먼지 대책 시급

농민들은 사시사철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완전히 노출된다.

도시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민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다. 당장 농사를 지어 먹고 살려면 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 바닷가나 배 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 서해 쪽 어민들의 고충은 요즘들어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육외근로자·교통신관관리자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현행 법률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어업인과 육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농어민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는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猶子比兒

猶子比兒

▷ 뜻: 조카들도 자기(自己)의 아이들과 같이 취급(取扱)하여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교통사고 예방 위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준수해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대책이 절실하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적

색 신호시 좌회전 금지' 문구도 붙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어 질문해보면, 대다수 운전자들이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 하겠다"며 도리어 "무슨 위반을 하겠냐"며 반문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시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좌측 보행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시에는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적색신호일 때 좌우측면은 녹색 등 정상신호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위반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의 뜻에는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색신호시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정상 신호

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는 중대과실사고에 포함 된다. 또한 녹색(직진)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시에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도로를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문두석 / 무안 송달파출소 경위

湖南新聞

대포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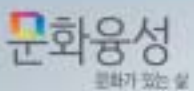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